

# GGM, 노사상생 첫 합작 1호차 생산… 연내 1.2만대 목표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 빛그린산단서 생산 기념식  
신차 '캐스퍼' 본격 양산체제 돌입  
현대車서 위탁… 내년 7만대 목표  
인력 539명 채용, 지역인재 93%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오전 광주 빛그린산단에서 양산 1호차 '캐스퍼(CASPER)' 생산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캐스퍼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자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는 첫 번째 완성차이다.

캐스퍼 본격 양산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법인설립 이후 2년 만에 이룩한 값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또 지난 2019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 덕립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가진지 19개월, 공장 준공일로부터는 4개월 보름 만이다.

노사 상생의 첫 합작품인 캐스퍼는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통해 GGM의 미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조립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양산차 '캐스퍼(CASPER)' 1호 생산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캐스퍼는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등이 설립한 합작법인 GGM이 생산한 현대차 엔트리 SUV 모델이다.

/뉴스

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GGM은 올해 목표 생산량을 1만 2000대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7만대 생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GGM은 23년 만에 국내에 설립된 완성차 공장이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광주의 아들딸들

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협력업체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과 투명한 경영 실현을 가치로 내걸고 같은 해 9월 20일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모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GGM 공장이 착공하면서 광주가 명실공히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이 마련됐다.

GGM은 현재 1교대를 기준으로 운영 인력 539명을 채용했다. 이중 광주·전남 지역 인재는 498명으로 전체 인원의 93.4%를 차지한다. 특히 20대가 51% (275명)에 달해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한 부분도 돋보였다. 공장 건설에 투입된 44개 장비업체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업체 참여율은 98%(42개 업체)에 달했다.

이 기간에 투입된 연인원 13만 7200여 명 중 지역 인력은 10만 9350여 명으로 79%를 차지했다.

또 공장 건설 과정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에 참여한 54개 업체 중 지역업체는 30개사에 달했고, 하도급 대상 공사금액(직접공사비)의 62.8%를

지역업체에 지급했다. 이 밖에도 GGM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30% 이상을 지역 식자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구내식당 인력 역시 최소 70%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했다.

GGM은 15일 첫 차 생산을 시작으로 올해 1만 2000대, 내년에는 7만대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협력업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업체 등 관련 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도 기대된다.

GGM은 현재 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회사 측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 후 해답을 구하는 구조를 갖추고 노사 간 상생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노사상생'과 '최고 품질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경우 세계 최고의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기보, 경북지역 기업에 1000억 우대보증

경북도·대경중기청 등과 업무협약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들과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 나선다.

기보는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지역균형뉴딜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경북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지역균형 뉴딜기업, 한국판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 ▲보증심사 일부 완화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대경중기청, 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지역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과 연계

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지역균형뉴딜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녹색보증, 행복일터 유지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을 위해 기보에 직접 재원을 출연해 지원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기보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 혁신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경북형 뉴딜 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과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포스코, 협력기업과 '착한 선결제' 행사

포항 연일시장, 광양 중마시장 방문

포스코와 협력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착한 소비'에 나섰다.

포스코와 협력기업이 함께 출범한 '기업시민 프렌즈'가 15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 연일시장과 광양 중마시장을 찾아 '착한 선결제'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기업시민 프렌즈는 친구 같은 거래 협력 기업이 돼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지난 2019년 출범됐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착한 선결제 활동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소비자 운동이다.

기업시민 프렌즈는 선결제 후 사용권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지역 경제는 살리고 취약계층과는 나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시민 프렌즈는 포항과 광양 전통시장에 총 4000만원을 선결제하



포스코 이주태 구매투자본부장(왼쪽 첫번째)과 협력기업인 조선내화 이명옥 대표(왼쪽 네번째)가 15일 포항 연일시장을 찾아 착한 선결제 행사를 진행하고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구입한 사용권을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해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선결제 대상 및 규모를 확대했다. 이날 포스코와 협력기업은 포항과 광양 전통시장 및 결식아동 지원 점포에 총 4500만원을 선결제했다.

선결제로 구입한 사용권 등은 향후 사회복지기관인 포항 푸드마켓 및 광양 사랑나눔 복지재단, 광양 건강가정·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전달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곡성군, 태양광 등 연내 415곳에 설치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415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주택,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는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곡성군의 사업량은 태양광 375개소, 태양열 39개소, 연료전지 1개소로 총 36억 가량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곡성군은 23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완료했고, 전체 사업량의 58%

가량에 달한다. 나머지 세대와 중도 포기 세대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청자를 모집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연간 약 633TOE의 화석 에너지 대체 효과와 소나무를 137,928그루 심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주택지원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반면 융복합사업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곡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영덕군, 지적재조사 추진 내년 총 974필지 대상

영덕군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의 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조사측량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2개 자구 3,219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8자구 1,426필지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4자구 1,793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영덕읍 덕곡리와 축산면 축산리 일대 974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 안동시,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나서

권영세 시장, 문어·과일 등 구매  
안동사랑 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안동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장보기를 실시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문어, 과일 등 제수용품과 추석 선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계도활동도 하며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하였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